

오피니언

김별아의 '문학과 삶'



신(新) 독서의 계절

지금 내 잡자리 머리맡에는 서너 권의 책들이 어지럽게 펼쳐져 있다. 내용의 분야도 제각각, 장르도 제각각, 읽어가는 속도도 제각각이다. 살금살금 잠이 오지 않을 때마다 손을 뻗어 내키는 대로 그것들 중 하나를 골라잡는다.

어떤 것은 수면제요 자장가가 되기도 하고, 어떤 것은 각성제요 장군죽비가 되기도 한다. 책이 자리하기에 가장 적합한 곳은 멧뜰어진 서재의 튼튼한 책꽂이가 아니다. 그것을 기쁘고 즐겁게 읽을 독자의 손이 닿는 곳이라면 어디나 책이 있기에 적합한 장소이다.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는 오래된 구호가 있다. 무릇 구호는 현실이러기보다 앞으로 구현되기 바라는 요구이거나 주장에 가깝다. 그러나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다!'라는 구호의 본뜻은 '날씨도 선선하고 책 읽기에 딱 좋으니, 제발 단풍놀이네 국화놀이네 놀러만 다니지 말고 책 좀 읽어라'는 것인지도 모른다.

실제로 출판계에서 실감하는 독서의 계절은 여름과 겨울이다. 학생들의 방학과 직장인들의 휴가철 덕분이지는 모르지만, 책이야말로 더위를 잊고 추위를 녹이는 데 독특한 역할을 하는 귀물이다.

심지어 에어컨이나 스토브보다 값도 턱없이 싸다. 아무리 고급 장정의 책이라도 업소에서 사먹는 맥주 서너 병값에 지나지 않고, 대부분의 책들은 고작하여 두어 병 정도의 가격이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맥주를 주문할 때보다 훨씬 까다롭고 강팔지게 책을 고른다. 맥주가 맛있다고 주류회사를 욕하는 일은 별로 없지만, 책값이 비싸다고 푸념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값어치를 못한다고 약담을 퍼부기도 한다.

물론 그것은 독서 문화가 제대로 정립되지 못한 탓일 수 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만큼 독자들이 책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기대와 바람이 여전히 크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다. 좋은 책이 더 많은 독자를 만든다. 그와 마찬가지로 좋은 독자가 더 좋은 책을 만든다.

법정 스님은 '무소유'에서 도리어 가을을 '비독서지절(非讀書之節)'이라고 불렀다. 독서의 계절이 따로 있다는 것부터가 이상할뿐더러, 가을날처럼 좋은 때에는 외부의 정보와 지식보다는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편이 낫다는 조언이다. 그런데 이 예시에는 매우 재미있고도 핵심적인 주장이 등장한다. 다음과 같은 대목이다. "독서가 취미라는 학생, 그건 정말 우습

다. 노동자나 정치인이나 군인들의 취미가 독서라면 모르지만, 책을 읽고 거기에 배우는 것이 본업인 학생이 그 독서를 취미쯤으로 여기고 있다니 정말 우스운 일이 아닌가."

노동자에게 노동이 취미, 정치인에게 정치가 취미, 군인들에게 군복무가 취미가 될 수 없는 것처럼, 학생에게 독서는 마땅히 본업이지 즐기 위해 선택하는 무엇일 수 없다는 말씀! 그런데 내 생각이 단지 학생들만이 아니라 어떤 직업을 가진 누구라도 독서를 '취미'삼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밥을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프 것처럼 책을 읽지 않으면 마음이 고프다. 독서는 그저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일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새로운 사유와 성찰을 얻는 것이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책읽기는 나를 만나는 길이다. 복잡한 일상에서 자칫하면 깜박 잊고 사는 나 자신, 배가 아니라 마음이 굶주린 나를 보살피는 방법이다.

어린 날 나는 '책벌레'였다. 외롭고 두렵고 아프고 속상할 때면 무작정 책 속으로 파고들었다. 그곳에 평온과 휴식과 자유가 있었고, 먹지 않아도 배고프지 않을 만큼 맛있는 상상의 세계가 펼쳐져 있었기

때문이다. 세상이 두려웠던 시절, 책은 내게 새로운 용기를 북돋워주었다. 마음이 아팠던 한때, 책은 나의 상처를 감싸며 다독여줬다. 감감한 어둠 속에 갇힌 듯 암울을 전혀 예상할 수 없을 때에도, 책은 작은 등불이 되어 내 발길을 밝혔다.

오늘도 나는 밤늦도록 땀글땀글하며 손에 잡히는 대로 책을 읽는다. 해태 타이거즈의 원년 팬으로 야구를 통해 세상을 읽는 서효인의 에세이 '이게 다 야구 때문이다'를 깔깔거리며 읽다가, 유리창이 켈인들을 덮치고 버려진 바질 씨앗이 식인 괴물로 변하는 김중혁의 소설집 '1F/B1'를 기묘한 상상력에 사로잡혀 읽다가, '나는 어찌하여 이, 범죄도 없는 길을 택하여 가는가?'는 장석남의 시집 '고요는 도망가지 말아라'에 가슴 먹먹해져 읽다가, 이리 왕글 '사기영선(史記英選)'과 저리 왕글 '푸른 네 갈색 눈'을 뒤적거린다.

그들과 함께 야구장에서 환호하다가, 상상 속의 세계를 헤매다가, 시의 숲을 거닐다가, 역사로 빨려들어 갔다가 인간의 심연 속으로 다시금 빠져든다. 아아, 행복하다! 아직 읽지 못한 책들이 너무 많아서.

세상은 넓고, 읽을 책은 많다. 바이흐로 뜨겁고 새로운 독서의 계절이다.

<소설가>

중고칼럼



이재술

한두 편의 응돈이 몹시도 귀하던 어린 시절, 어느 날 학교 앞 아버지편에게 응돈을 몽땅 털렸습니다. 기표된 주사위가 담긴 컵을 알아맞히는 게임인데, 다른 사람들이 쉽게 맞추고, 돈을 불러가는 것을 지켜보다가, 승률 100%를 확신하고 가진 돈을 전부 베풀었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상황이 끝나야, 판을 깬 사람도, 그 판에서 돈을 불린 바람잡이도 모두 한 패거리였음을 알았고, 그들의 속임수에 넘어갔음을 알았습니다. 갖고 싶고, 먹고 싶은 것 참아가며 아낀

속아 넘어가는 것도 죄악이다

응돈을 한 순간에 다 날려버리고 마음 아파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유난히 그 기억이 지워지지 않고 생각하면 할수록 부끄럽고 열굴이 화끈거렸던 것은 그 속임수에 넘어간 이유가 나의 우둔함 때문만이 아니라 허황된 욕심, 나쁜 마음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사건은 많은 깨달음을 안겨주었습니다. 대부분의 어처구니없는 판단과 행동은 무지와 무능 탓보다는 허황된 욕심과 이해관계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도덕적으로 완벽히 타당한 정권으로 명명될 현 정권이 대선이라는 판돈을 쓸어 담던 5년 전 그날, 이런 기막힌 결과가 어떻게 현실이 되었는지, 우리가 왜 이런 어처구니없는 선택을 했는지 알아 쫄 수 있었던 것도 그때 그 깨달음 덕이었습니다. 허황된 욕심

이 부자 만들어 준다는 선동에 부화뇌동하여 판돈을 날려버린 것입니다.

한 유력한 대선 후보가, 이미 역사가 루테타로 규정된 5·16을 구국의 혁명이며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당당하게 발언하고 이런 망언이 먹혀들어가는 이 '멘붕'(멘탈 붕괴) 상태가 도래한 이유를 알게 해준 것 역시 그 깨달음 덕입니다.

4·19혁명을 짓밟고 인권과 정의를 돈 몇 푼에 팔아넘긴 5·16을 루테타로 규정한 역사적 평가는 뒷전이고 '잘살아보세!'라는 원색적인 구호만을 기억해내고 그 구호에 연루된 인사에 열호하는 것은, 지금의 물질적 풍요에 대한 과대평가와 그 과대평가된 풍요에 대한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 현실은 결코 특정 시기, 특정인의 결단과 결행의 결과

가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의 총화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특정시대와 계층, 이권과 이해관계에 편입되어 있는 한 합리적인 사고와 판단은 불가능합니다. 그런 면에서 "의회는 야심에서 뿐 아니라 지능에서도 그 나라 국민의 평균보다 뒤진다"는 영국의 시인 스펜서의 통찰은 사실을 넘어선 진실입니다.

이해관계의 화신인 정치인들이 화려한 학력과 경력에도 불구하고 늘 평범한 시민들에 못 미치는,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결정과 선택을 반복하는 것 역시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사도 바오로는 에페소인들을 향해 '허황된 말에 속아 넘어가면 하늘의 진노가 내린다'고 했습니다. 속이는 것만이 아니라 속임을 당하는 경우를 함께 꾸짖은 것은 속임을 당하는 것 역시 허황된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간파했기 때문입니다.

부자 만들어 준다는 감언이설에 속절없이 대선이라는 판돈을 내뉘었던 5년 전의 경험은 한 번으로 충분합니다.

<목도기톨릭대학교 교수>

기고



양대동

전기는 우리 일상생활에 공기가 물처럼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생활필수품이다. 이렇게 공기가 물처럼 소중한 소중 하지만 그 소중함을 모르고 당연히 공급해 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사용하고 있다.

올해 여름철 최대전력사용량이 지난해보다 480만kW 증가한 7707만kW로 전망돼 최대 전력 발생시 예비전력은 400만kW이하로 예상되고 있다. 이런 경우 올 여름철 전력 사용 피크 땀 비상사태가 발생할 우려도 배제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지난해 9월 15일 순환정전이라는 전력 대란을 처음 경험한 적이 있다.

여름철 절전 실천 꼭 필요한 이유

하지만 지난 6월 21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정부부처와 합동으로 전 국민이 참여하는 정전 대비 위기대응 훈련을 실시한 결과 약 548kWh에 해당하는 전력을 절감하는 국민적 역할을 우리는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우리 모두가 전력피크시간대인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전기사용을 최대한 자제하는 실천이 매우 중요하다.

사용이 편리한 전기이기 때문에 일상생활 속에서 무심코 남겨버리는 에너지 낭비는 심각하다. 가전제품을 쓰지않으면서 플러그를 뽑지 않거나 아무 생각 없이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일반가정집 전력소비량의 11%를 차지하는 전기가 낭비되고 있다.

대기전력으로 낭비되는 전기는 우리나라에서 연간 5000억 원에 달하며 이는 85만 kW급 발전소 1기가 쓰지도 않는 대기전력을

위해 돌아오고 있는 셈이다.

대기전력이란 실제로 가전기기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코드가 콘센트에 꽂혀 있다면 일정량의 전류가 흐르는 것을 말한다.

올 여름 다시 정전 대란을 겪지 않으려면 이러한 대기전력을 발생하지 않도록 환과 아울러 여름철 전기사용절약방법을 실천하여 에너지절약에 모두가 동참해야 한다.

여름철 전기에너지 절약실천 방법으로는 에어컨 적정 냉방온도는 26℃~28℃ 유지해야 한다. 멀티탭 끄기를 생활화하고, 절전형 멀티탭으로 바꿔야 한다. 또 5kg 운동을 생활화해야 한다. 즉 플러그 뽑기, 전등 끄기, 계단 걷기, 온도 지키기, 네티비 플기를 지켜야 한다. 불필요한 조명은 소등하고 쓰지않는 컴퓨터 껐야 하며 직장에서는 업무와 무관한 전등은 소등해야 한다. 점심시간

조명은 끄고 컴퓨터를 10분 이상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절전모드로 전환해야 한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여름철 약 24~28도가 건강 적정온도라고 한다. 또 건강온도는 실내의 온도차가 5도 이내 범위다.

이보다 온도차가 더 벌어지면 장시간 일했을 때 면역력이 약해지고 아토피 등 피부 질환과 비염, 폐렴 등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 이른바 '냉방병'이다. 냉방병을 피하고 쾌적성을 유지하면서 에너지 절약을 감안한 적정 건강온도는 여름철 26~28도다.

전 세계적 고유가 시대에 우리나라는 원유를 100% 수입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가정마다 집집마다 번거롭고 귀찮지만 가전제품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플러그를 뽑거나 멀티탭 스위치 끄기를 실천하여 대기전력을 차단하고 가정, 상가, 기업체, 백화점, 직장 등 곳곳에서 우리 모두 적정 냉방온도를 준수하여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한전 목포지사 고객지원팀 과장>

'공부 잘하는 약' 부작용 심각...복용 방지 신경써야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야 할 수 있는 약 중에 '염산메칠 페니데이트'라는게 있다고 한다. 필자도 이런 전문적인 약이 있는지는 몰랐지만 최근에 학교에 갔다가 선생님께서부터 듣고 알았다.

왜 이 약의 이야기를 하는가. 1분1초가 아까운 사람들을 꼽으려면 단연코 수험생과 고3를 아닐까 싶다. 공부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수험생들이 흔히 쓰는 방식은 마음이 급한 나머지 소위 '공부 잘하는 약'을 먹는 행동이다. 그 약의 이름이 바로 '염산메칠 페니데이트'라는 것이다.

학생들은 시험을 치르는 그 순간까지 항상 불안하고 또 초조하고, 그래서 잠도 못자고 그럴 것이다. 결국에는 다급해진 마음에 집중력을 높여준다는 이 약을 복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약은 원래 주의력 결핍증 치료제인데 이것은 주의력이 산만해 조금도 가만히 있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장애가 있어야 처방되는 약이라는 사실이다. 학교에서 학부모 초청 간담회가 있어서 갔는데 담임선생님이 보건교사의 설명과 함께 이 약을 알려주면서 우리 학생들이 혹시

집에서 공부를 하겠다는 욕심에 이런 약을 복용할지 모르니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학부모가 관심을 가져 달라는 부탁을 하셔서 알았다.

주의력이 아주 떨어지는 사람에 한해, 그것도 병원의 처방이 있어야만 먹을 수 있는 이 약을 만약 정상인이 먹으면 충동적인 행동을 하거나 판단력이 흐려지고 중독성까지 있어 오히려 위험생활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제 일종의 마약류 같은 성분이 있어서 신경이 과민해지거나 불면증을 일으키거나

또, 심하게는 공격적인 행동까지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 약을 학생들이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불법적으로 구입해 먹다가 심각한 부작용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 엄마 아빠들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자녀들을 챙겨봐야 할듯하다.

공부 효과는 약을 복용하기보다는 충분한 수면과 규칙적인 식사가 집중력 강화에 도움을 준다고 하니 학생들에게 그런 조언을 주는 게 좋을 것이다.

▲윤현숙·순천시 안동동

시설

'대형마트 영업 제한' 조례 서둘러 개정해야

광주지방법원 행정부가 18일 광주·전남지역 대형 유통업체들이 "영업시간을 제한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광주 5개 구청장과 목포·여수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조례 중 일부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고 조례 제정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이반 판결로 골목상권 살리기 차원에서 진행된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제한 조치는 일단 제동이 걸리게 됐다. 이마트 8곳과 롯데마트 5곳, 홈플러스 4곳 등 17개 점포가 영업시간 제한은 물론 의무휴업일 없이 영업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영업 제한의 정당성과 필요성은 인정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을 놓고 법원이 영업 제한 자체가 위법하다고 결정한 것으로 왜곡해서는 안 된다. 법원이 지적인 위법성을 바로잡는 쪽으로 조례를 고치면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법원이 조례의 위법성을 지적한 것은 상위 법령

을 일부 위반했기 때문이지 법령의 근거가 없어서가 아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개정해 다시 규정에 나서겠다고 밝히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그런데도 일부에서는 영업 제한 조치 자체가 위법하다고 판결한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 판결 취지를 곡해하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조례가 제정된 뒤 고령 유치와 시장 활성화를 위해 안간힘을 써온 중소 상인들로서는 다시금 생계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재래시장과 골목상권이 대형유통업체의 영업 제한 조치로 숨통이 트어가는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하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유통산업발전법의 취지대로 골목상권을 살려 유통산업의 상생을 꾀하고 소비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각 지방의회가 서둘러 상위법에 부합하게 조례를 개정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정치권에서 추진 중인 대형마트 등에 대한 추가 영업 제한 방안도 제도화되길 바란다.

경찰 간부가 대부업에 성폭행까지 하다니

경찰이 시민들 앞에 얼굴을 들 수 없게 됐다. 경찰 간부가 여교사를 성폭행하는가 하면 불법 대부업에 투자해 고리를 뜯는 등 도무지 믿기지 않는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찰에 생명과 재산을 맡겨도 되는지 시민은 불안할 뿐이다.

19일 전남경찰청에 구속된 박모(45) 경위는 지난 2008년 여수에서 A군(당시 16세)이 투신해 숨진 사건과 관련, 과외 여교사 B씨를 조사하던 중 "말아서 추락시킨 것 아니냐"고 협박해 성폭행했다고 한다. 그는 이 과정에서 수차례에 걸쳐 B씨에게 7000여만 원을 뜯어냈다.

박씨는 또 2009년 3월께 불법 사채업자 최모(40)씨에게 1억5000만 원을 투자해 이자 4000만 원을 받아 찡긴 혐의에 받고 있다. 현지 경찰 간부가 이 정도로 파렴치한이라는 현실이 너무나 섬뜩하다.

전남지역 모 경찰서 소속 A 경감도 최근 여성을 폭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

그는 피해 여성과 합의를 했다고 하나 법과 질서를 수호해야 할 경찰이 범법행위를 저지른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으로서 불·탈법이 이 정도이니 한심하기 짝이 없는 노릇이다. 이런 저질 경찰관들이 시민의 처단을 맡아왔다는 게 분노마저 지킨다.

경찰은 현재 상황을 몇몇 사람의 기강행위로 빚어진 일로 치부해선 안 된다. 경찰은 경찰관의 비리사건이 터질 때마다 기강 확립을 입버릇처럼 되풀이 해왔다. 그렇지만, 여론이 잠잠해지면 원점으로 회귀하는 '회색 행사'에 그쳤다.

경찰은 무엇보다 자성과 개혁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는 게 우선이다. 이를 위해 비리 경찰관은 재발 방지 차원의 영구 퇴출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이 비리의 악순환을 키우지 않았는가. 뼈를 깎는 아픔으로 쇠신을 하지 않는 한 비리 근절은 있을 수 없다.

無等鼓

세상을 뒤흔든 특종의 이면에는 늘 '딥 스로트(Deep Throat)'가 있었다. 지난 1972년 6월 17일 워싱턴의 워터게이트빌딩에 있는 민주당 전국위원회 본부에 피한 5명이 침입해 도청장치를 설치하려다 발각됐다. 처음에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던 이 사건은 워싱턴포스트지의 밥 우드워드와 칼 번스타인 기자가 익명의 고위 관리의 제보로 나온 대통령에게 재산을 위해 꾸민 공작이라는 사실을 보도하면서 파장이 커졌다. 이른바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낙인은 임기 도중 사임한 미국 최초의 대통령이란 오명을 뒤집어 썼다.

딥 스로트는 단서를 제공했던 정보 제공자

1987년 1월 15일 국내 모 일간지 사회면에서 "경찰에서 조사받던 대학생 소크사"라는 2단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서울대 언어학과 3학년생 박종철군의 고문치사 사건을 다룬 내용으로 기사 분량은 많지 않았지만 사회적 파장은 엄청났다. 대검 출신기자가 고문으로 인한 소크사라는 의문을 제기하면서 문필 행한 사건이 대북종으로 살아났다.

그 유명한 "수사관이 책임을 '탁'하고 치니 박종철군이 '악'하고 죽었다"라는 대검측의 해명은 이 보도 이후 나온 것으로, 오히려 국민 여론을 악화시켜 1987년 민주화운동의 불씨가 됐다.

박종철군 사건의 딥 스로트가 25년만에 모습을 드러냈다. 주인공은 당시 대검 공안4과장을 지낸 인물로 공안부장 타타원에서 사건에 관한 얘기를 듣고 진실은 반드시 알려져야 한다는 생각에 제보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딥 스로트는 특종을 낚고 특종은 세상을 바꾼다. 부정부패가 없는 세상이려면 딥 스로트가 존재할 이유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음흉한 딥 스로트의 등장은 반가운 일이다. /장필수 사회부 차장 bungy@kwangju.co.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1952년 4월 20일 創設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지11(일간)
대표전화 222-8111-2200-551